

청소년의 정신병질 하위집단에 따른 인지 및 정서의 차별적 특징*

권 채 은¹⁾ 신 희 천²⁾ 원 성 두³⁾ 김 은 정^{2)*}

¹⁾마음과배움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²⁾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³⁾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 수준에 따른 정신병질의 하위집단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차별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 중고등학생 611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성향의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K-ICU), 특성불안 척도(TAS)를 실시하였다. 정신병질 성향의 집단으로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을, 비교 집단으로 저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집단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 척도(HIT-Q),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 정서 강도 척도(AIM)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병질 성향의 고 냉담무정서 집단들은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에서 저 냉담무정서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정적으로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은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 빈도 및 강도에서 다른 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장 제한적으로 정서를 경험함이 시사된다. 반면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부정 정서 경험의 빈도 및 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정신병질 성향의 두 집단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구별된 특성을 보유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정신병질 성향에 대한 개입 시 하위집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 및 정서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의 함의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냉담무정서 특질, 특성 불안, 정신병질 하위유형, 인지적 왜곡, 정서 경험

* 본 연구는 제1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Tel: 031-219-2737 / E-mail: keji@ajou.ac.kr

Copyright ©2022,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정신병질(Psychopath)이란 공감능력 및 죄책감 결여와 같은 정서장애와 충동성 및 행동통제 곤란 등의 행동장애를 특징으로 한다(Hare, 1980, 1999). 특히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정신병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탈 및 범죄 행위를 지속하고, 강력 범죄 및 흉악 범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정의 효과가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은 성인기 이전에 선제적 개입을 위해 반사회적 행동의 만성화와 심각도에 관여하는 정신병질적 성향의 조기 예측요인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왔다(Frick, 2006).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생애 전환기로 신체적 성숙에 비해 감정 조절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며(홍명숙, 어주경, 2013) 그중에서도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품행 문제는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성인 범죄로 이어지고 이는 전 생애에 걸쳐 매우 심각한 형태로 지속될 위험이 있으므로(Fergusson & Woodward, 2000)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은 정신병질의 정서 및 대인관계 장애 특성과 행동장애 특성 중 공감능력의 결여, 죄책감의 결여, 제한된 정서 표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인의 이용 등의 정서적, 대인관계적 양식을 일컫는다(Frick, 2006). Hare, Clark, Grann과 Thornton (2000)은 치료반응이 부족한 수감된 성인 정신병질자들에게 냉담무정서 특질이 존재할 때 정신병질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을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Frick, 2006; Frick & White, 2008).

나아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과 성인에게서 냉담무정서 특질과 정신병질 수준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냉담무정서 특질이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병질 경향성의 하향 확장된 대표적인 표지자임을 확인하였다(Docherty, Boxer, Huesmann, O'Brien, & Bushman, 2016). 냉담무정서 특질은 정신병질의 전체 스펙트럼을 채우기보다는 아동 청소년기에 사용되는 것이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냉담무정서 특질은 어린 연령대부터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에 안정적인 편이고, 아동 청소년의 비행, 공격성, 학업적인 투자 부족 등 다른 부정적인 결과물과 높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Frick & Morris, 2004; Frick & White, 2008).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냉담무정서 특질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연구 초기에 정신병질은 동질적 구성개념으로 검토되다가, 이후 정신병질은 두 개의 넓은 하위유형을 가진 것으로 구조화되었다. 두 개의 하위유형을 표현형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불안의 존재, 병인론, 발달력, 정신건강상태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론화되었다. Karpman(1941)에 의하면, 정신병질은 두 개의 하위유형 중 일차적 정신병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인의 영향이 크고, 낮은 수준의 불안과 죄책감과 타고난 비정서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이차적 정신병질은 외상이나 학대의 경험에 의한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충동성, 적개심, 과도한 정서성, 신경증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정신병질의 2요인 이론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높은 불안이 없는 일차적 정신병질은 두려움, 불안을 높이는 반응과

제에서 정상인보다 더 적게 반응했고, 불안이 상승한 정신병질 이차적 정신병질은 더 큰 두려움, 우울, 분노를 보였다(Newman,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일관되었다(Kimonis, Frick, Cuffman, Goldweber, & Skeem, 2012). 신경생리학적 차이들도 존재하는데, 일차적 정신병질은 비정서성, 낮은 특질불안 수준, 저조한 행동억제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와 관련되어 있고, 반대로 이차적 정신병질은 행동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정서적 과민성, 높은 특성 불안 수준, 과도한 행동활성화체계(BAS: Behavioral Activator System)와 관련되어 있었다(Falkenbach, Poythress, & Creevy, 2008).

Book(2005)의 제안에 따르면 정서적,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일차적 정신병질자는 타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타인을 성공적으로 속이거나 전략을 바꿔야 할 때를 알기 위해 특정적으로 타인의 두려움과 분노의 정서적인 얼굴 단서를 인식해내고, 내적으로는 두려움, 죄책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동의 결핍과 둔화된 정서를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차적인 정신병질은 부모의 학대와 거절과 같은 환경적인 원인으로부터 발달하므로 신경증, 충동성, 공격성과 정서적인 반응성과 연합된 근본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한 매우 불안정한 정서적인 능력은 안정적인 대인 관계와 적응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반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Karpman, 1941; Kosson & Newman, 1995; Lynam, Whiteside, & Jones, 1999).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초기의 학자들은 일차적 정신병질

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도구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고, 이차적 정신병질의 경우에는 부정적 삶의 경험이나 환경적 결합으로 인해 생겨난 분노나 복수심 같은 반응성의 표출로 설명했다(Flexon, 2015). 하지만 정신병질의 하위유형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 결과들은 다소 혼재되어 있다. 비제도권 표본(Flexon, 2015)과 수감된 청소년 집단(Kimonis, Skeem, Cauffman, & Dmitrieva, 2011)에서 이차적 정신병질 청소년이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보다 도구적이고 반응적인 공격성을 보였고,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공격성과는 미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국내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이지후, 이훈진, 안도현, 2017)는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이 이차적 정신병질 집단에 비해 모든 공격성 유형들과 더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정신병질과 동기에 따라 구분된 공격성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연령, 성별, 집행기능 등의 중재 변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인 대상의 연구들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하여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이론을 하향 확장해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아동 청소년 정신병질의 주요한 구성요인인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의 유무로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Kimonis et al., 2012). 냉담무정서 특질 차원에서 구분된 청소년 정신병질 하위집단 특성이 성인의 특성과 유사한 적응 패턴을 보인다면 청소년 정신병질 하위집단들의 병인학을 명확하게 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물의 축적으로 정신병질 두 개의 하위집단에서 성인(Blagov et al., 2011; Poythress & Hall, 2011)과 청소년(Kimonis et al., 2012; Humayun, Kahn, Frick, Thornton, & Kahn, 2014)의 냉담무정서 특질의 수준이 다르지 않고(Kahn, Byrd, & Pardini, 2013; Vaughn, Edens, Howard, & Smith, 2009), 저 불안의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은 일차적 정신병질적 적응 패턴에, 고불안의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은 이차적 정신병질적 적응 패턴에 상응함을 밝혔다. 그러므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의 고저로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상당히 입증되었다(Docherty et al., 2016; Euler et al., 2015; Fanti, Demetriou, & Kimonis, 2013; Humayun, O'Connor, Briskman, & Scott, 2016; Kahn et al., 2013; Meehan, Maughan, Cecil, & Barker, 2017).

연구 결과들을 취합해 보면 저 불안의 높은 냉담무정서 집단(일차적)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고 불안의 높은 냉담무정서 집단(이차적) 청소년은 더 큰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Euler et al., 2015; Kahn et al., 2013), 품행문제와 또래 압력(Fanti et al., 2013), 비행(Vaughn et al., 2009), 공격성과 폭력(Docherty et al., 2016; Kimonis et al., 2011)과 관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Kahn 등(2013)의 진료소에 의뢰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불안 및 과거 트라우마가 높은 수준의 개인은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 및 낮은 불안의 개인보다 충동성, 행동 억제, 외현화 행동 및 공격성의 척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더 많은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Euler 등(2015)은 아동 복지 및 소년 사법 기관에 거주하는 품행 장애(Conduct Disorder)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높은 불안 및 낮은 불안의 두 집단이 품행 문제만 있는 집단보다 알코올 및 약물 의존 및 남용 수준이 높았고,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 및 높은 불안을 보유한 이차적 집단이 가장 심각한 파괴적 행동과 물질남용을 보임을 밝혔다.

또한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의 두 집단은 Cloninger의 기질 및 성격 검사(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에서 품행 문제만 보인 집단보다 자극추구 성향이 두드러지고 가장 낮은 연대성과 더 낮은 자율성을 나타내 성인의 성격 장애와 관련된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 발달의 징후가 시사됨을 밝혔다. 특정적으로 높은 불안과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의 품행 장애 청소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회피를 나타내 높은 수준의 신경증과 관련된 행동활성화 및 억제의 조합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이들이 겪는 정서적 신체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기제로 해석하였다.

더불어 Meehan 등(2017)은 7세에서 13세의 지역사회 아동 14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 간의 종단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전 연구 결과들의 타당도를 높이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초기에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 둘다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품행 장애(Conduct Disorder) 및 정서적 문제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관찰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의 청소년은 품행 장애의 증가 추세를 보이긴 하나 나머지는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의 청소년은 불안, 우울에서 심각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고, ADHD, CD, ODD의 발달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이 일차적 냉담무정서 아동청소년보다 더 큰 환경적 역경을 경험하고 모의 임신 초기의 가족 역경(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대인 관계 스트레스 요인 모두 포함)과 신체적 충격, 모의 정신병리(우울, 불안)와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성인기 정신병질의 조기 예측자인 냉담무정서 특질을 통해 불안의 유무로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질 경향성의 차이를 탐색하는 시도는 아동이 청소년기에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로 또는 청소년이 성인기의 다른 성격장애로 발병 전 개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냉담무정서 특질 차원과 불안 기반의 두 하위집단의 상이한 정신건강 상태와 발달력, 병인론을 명확히 함에 따라서, 차별적인 치료의 목표를 제공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가능성도 시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의 청소년들에게도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을 통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으로,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인지 왜곡의 내용과 정서경험의 빈도와 강도의 차이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 청소년은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 보다 더 큰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Euler et al., 2015; Kahn et al., 2013, Kimonis et al., 2011; Kimonis et al., 2012), Meehan 등(2017)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초기에 이차적 냉담무정서를 보인 집단은 두려움, 부정정동, 우울에 대해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일차적인 냉담무정서 특질의 원형적인 프로파일과는

상반되게 청소년기로 갈수록 품행문제와 더불어 불안, 우울 증상까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내현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하은혜, 2006)가 이차적 정신병질과 일차적 정신병질을 근본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인지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hine과 Hobson (1997)이 영국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이 자기비판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던 반면 이차적 정신병질 집단은 자기비판과 정적으로 관련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Hostility and Direction of Hostility Questionnaire에서 일차적 정신병질은 대체로 관련성이 없었고, 이차적 정신병질은 자기비판과 내부를 향한 적대감과 중간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고, 타인비판과 외부를 향한 적대감과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특징적으로, 자기비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혹하게 평가하는 역기능적 성격 특성으로 자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판단하여 무가치감, 실패감, 무망감 등의 병리적 수준의 부정정서를 느끼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는 잘 느끼지 못하여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하였다(함성민, 현명호,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차적 냉담무정서가 높은 청소년에게 공유된 높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는 특정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정신병질과 인지 내용 간의 관련성에 대해 Chabrol, Leeuwen, Rodgers와 Gibbs(2011)는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상태, 주요 생활 사건, 학업지속 기간, 또래 및 부모와의 애착), 정신병리적 요인(경계선적 성격 특질, 가학적 특질, 우울)과 주요 사회인지적 요인(도덕적 판단,

인지적 공감)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자기분위적인 인지왜곡(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이 정신병질 특질과 높은 정적 상관을 이루었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예측자라는 것을 밝혔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Gibbs와 Chabrol(2013)는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분위적인 인지왜곡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간접 효과를 탐색하는 두 개의 경쟁모델을 검증하였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자기분위적인 인지왜곡이 냉담무정서 특질을 경유하는 모델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을 경유하는 두 모델 모두 유의미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며, 두 경로 다 가능함을 증명했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정서성에 대한 연구는 정신병질 연구자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였고, 연구들은 주로 정서 인식 명확성, 정서조절, 부정 정서성, 적대감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의 내적인 정서 경험은 비교적 덜 관심을 가진 주제였고, 이들이 정서를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부족했다(Gill & Stickle, 2016).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의 정서적인 특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에서 그들은 제한된 정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제안하였으나 Marsh 등(2011)은 분노, 혐오, 행복 또는 슬픔이 유발되었을 때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 청소년과 정상적인 통제집단 사이에는 정서경험의 차이가 없다는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덜 느끼거나 단순히 얕은 정동을 경험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정신병질의 유형에 따라 정서적인 측면의 차별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의 가장 두드러

진 연구 결과는 일차적인 정신병질은 결핍된 불안,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정서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Patrick, 1994), 이차적인 정신병질은 더 많은 신경증, 충동성, 우울, 분노, 고통으로 특성화되므로 부정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Patrick, Hicks, Krueger, & Lang, 2006; Shine & Hobson, 1997). 일반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Del Gaizo와 Falkenbach(2008)의 연구는 부정 정서에 대해 일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은 부적으로, 이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은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이면서 정신병질의 하위요인 이론과 일관된 결론에 도달했다. 반면 긍정 정서에 대해서 일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은 전반적으로 약한 정적 관련성으로 보였고 이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은 ‘주의 깊은’, ‘흥미 있는 느낌’과의 약한 부적 관련성 외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차적 정신병질 성향의 사람들에게 ‘주의 깊은’, ‘단호한’, ‘열정적인’과 같은 긍정 정서의 경험과 조합된 결핍된 두려움(Lykken, 1995), 불안(Karpman, 1941; Lykken, 1995), 고통과 죄책감(Cleckley, 1941; Hare, 2003)과 같은 감소된 부정 정서는 그들이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죄책감 없이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차적인 정신병질 특질을 가진 사람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그들의 타인의 정서에 대한 지각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타인에 대한 흥미와 주의 결핍, 적대감, 등 부정 정서의 과도한 경험과 정서조절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신병질 유형과 정서 강도 측면에서 Gill과 Stickle(2016)은 청소년 수용소에 있는 청소년들 중 이차적인 정신병질 집단은 일차적 정신병

질 집단들 보다 더 높은 강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임상 수준의 우울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Gill과 Stickle(2016)에 의하면 이차적 정신병질 집단이 강하게 느끼는 좌절감,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외현화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다소 충동적이고 극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특정적으로 고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 고저에 따른 하위집단들과 정서 경험 및 강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고, 저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에서 불안 고저에 따른 집단들과의 비교가 부재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 하위 집단들과 비교집단들을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일반 청소년 집단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의 품행 및 반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연구 주제로 냉담무정서 특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정신병질을 하위유형 이론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의 관심은 부족한 편이며 더욱이 불안의 유무로 구분되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청소년 정신병질 하위집단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병질 발현에 대한 조기 예측자인 냉담무정서 특질을 통해 불안의 유무로 정신병질의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의 정신병질 하위집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주제들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전의 연구들은 집단을 구분할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군집분석을 채택함에 따라,

일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 정신병질 성향 집단, 특히 일차적 집단이 과다 추정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Kimonis et al., 2012; Meehan et al., 2017). Meehan 등(2017)의 연구에서 일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이 전체 표본의 30%이상이었으며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준임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냉담무정서 특질 점수의 상위 15% 집단을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인 정신병질 성향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 15% 집단 내에서 비교집단들을 구성하였다. 저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 내에서 낮은 불안을 보이는 집단을 낮은 위험 집단으로, 반대로 높은 불안의 집단을 불안 집단으로 가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성향의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들(일차적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과 저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들(낮은 위험 집단과 불안 집단)의 인지와 정서의 차이를 조명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 청소년에게 확장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지적 조망에 기반을 둔 냉담무정서 특질에 대한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인지적 처리 과정을 강조했던 반면 하위집단 간의 사고 내용, 즉 인지왜곡 내용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내현화 문제에 특징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서 각 하위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내현화 문제를 동병이환하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의 경우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에 비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반사회적 행동의 강력한 예측자인 자기 본위적인 인지왜곡은 비교집단들에 비해 고

냉담무정서 특질의 두 하위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의 내적인 정서 경험과 관련하여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에 따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집단들의 정서 경험의 특정성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소재 2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 서명 하에 진행하였고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자료인 9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6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367명(60.1%), 여학생 244(39.9%)명이었으며, 중학생은 1학년이 94명(15.4%), 2학년 93명(15.2%), 3학년 148(24.2%)명으로 총 335명(54.8%) 이었고, 고등학생은 1학년이 125명(20.5%), 2학년 112명(18.3%), 3학년 39명(6.4%)으로 276명(55.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3세(SD=1.5)였다.

측정 도구

냉담무정서 특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냉담부정서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Frick(2004)이 제작한 이후 Essau,

Sasagawa와 Frick(2006)이 개정하고,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이 번안, 타당화 한 K-ICU(Korean-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를 사용하였다. K-ICU는 총 24문항으로 3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와 같이 냉담성(Callous)에 대한 10문항, ‘나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기분이 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와 같이 역채접하는 ‘부주의/무신경(Uncaring)’ 9문항, 더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분을 숨긴다’와 같은 감정표현결여(Unemotional)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0~3)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권은정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1이었다.

불안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하고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AI는 2가지 하위요인인 일상적으로 느끼는 지속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특성 불안과 현재 느끼는 상태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상태 불안에 대한 각각의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질에 가까우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보고 특성 불안(Trait Anxiety Scale: TAS)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TAS는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나는 한번 낙담하면 헤어내기 힘들다’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진주(2008)의 연구에서의 특성 불안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2였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도 .82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와 Rapee(2002)가 개발한 자동적 사고 척도(CATS)를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자동적 사고 척도(Korean-versio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K-CATS)를 사용하였다. 총 32개의 문항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와 같은 우울 인지 관련 10문항,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사회불안 인지 10문항, ‘내가 다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와 같은 신체적 위협 인지 6문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누구든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적대적 인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하지 않았다’(0점)에서 ‘항상 했다’(4점)까지 5점(0~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경주 등(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2 ~ .95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우울인지는 .93, 사회불안 인지는 .93, 신체적 위협 인지는 .89, 적대적 인지는 .74였고,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

Barriga, Gibbs, Potter와 Liau(2001)는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왜곡 척도(How I Think

Questionnaire: HIT-Q)를 개발하였다. HIT-Q는 비행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행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인지 내용이나 사고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총 16개의 문항,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뤄져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와 같이 나 중심(Self-centered) 4개 문항,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와 같은 내용의 축소화 잘못 명명하기(Minimizing/Mislabelling) 4개 문항,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해쳐야 한다’, 와 같이 최악을 가정하기(Assuming the worst) 4개 문항,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 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Blaming others)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황순옥(2015) 연구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의 빈도

정서경험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과 Carey(1988)이 개발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우리말로 번역·타당화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에 의해 수정 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활기찼다’와 같은 긍정 정서와 ‘두려웠다’와 같은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각각 10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에서 ‘항상 했다’(4점)까지 5점(0~4) 척도로 평정하

게 되어 있다.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 정서는 .086, 부정 정서는 .83이었고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89, 부정 정서 .87, 전체는 .87로 나타났다.

정적 및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Larsen(1984)이 개발한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 AIM)로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폭 혹은 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정서적 경험의 빈도를 강도에서 분리해내도록 설계되었으며, 주관적 경험, 신체적 반응, 인지적 수행 등 정서적 반응이 표출되는 표현 경로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는 하위 요인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Weinfurt, Bryant와 Yarnold(1994)이 제안한 요인 구조를 토대로 긍정 정서 강도와 부정 정서 강도로 구분된 척도를 한정원(1997)이 변안·타당화하고 옥수정(201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행복할 때 에너지가 넘친다'와 같은 긍정 정서 강도와 '나는 심하게 다친 사람을 보면 감정이 심하게 요동된다'와 같은 부정 정서 강도를 나타내는 각각 20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옥수정(201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 요인 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강도 .85, 부정 정서 강도 .74,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분석 방법

SPSS 22.0을 사용하여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로 정신병질 성향의 집단들과 비교집단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 의한 절단 점수를 활용하여 네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결과 분석 전 각 집단들의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Finch와 West(1997)의 기준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변인에서 왜도 절댓값 2와 첨도 절댓값 7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자료가 정규성 분포를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이어 진행하였다. 셋째 각 집단 간 주요 종속변인들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우울 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 적대적 인지), 자기본위적 인지 적 왜곡, 정서 경험의 빈도(긍정 정서 빈도, 부정 정서 빈도), 정서 경험의 강도(긍정 정서 강도, 부정 정서 강도)에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 분석 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Games-Howel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은 표 1에서 제시되었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특성 불안 두 변인은 서로 중간 정도로 상관되었다, $r(611) = .21, p < .01$. 냉담무정서 특질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중간 정도로 상관되었다, $r(611) = .16, p < .01$. 또한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은 중간 정도로 상관되었다, $r(611) = .39, p < .01$. 냉담무정서 특질과 정서 빈도 총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611)

	1	2	3	4	5	6	7	8	9	10
1. 냉담무정서 특질	1									
2. 특성 불안	.21**	1								
3. 부정적 자동적 사고	.16**	.61**	1							
4.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	.39**	.14**	.38**	1						
5. 정서 빈도 총점	-.07	.06	.35**	.22**	1					
6. 긍정 정서 빈도	-.18**	-.41**	-.13**	.08*	.65**	1				
7. 부정 정서 빈도	.08*	.48**	.58**	.21**	.67**	-.12*	1			
8. 정서 강도 총점	-.41**	.04	.13**	-.09*	.33**	.28**	.16**	1		
9. 긍정 정서 강도	-.41**	-.21**	-.05	-.08*	.31**	.43**	-.02	.88**	1	
10. 부정 정서 강도	-.23**	.39**	.35**	-.06	.22**	-.07	.35**	.72**	.30**	1
평균	23.7	44.3	33.3	31.9	31	18.3	12.7	148.8	55.9	90.9
표준편차	7.5	8.4	22.9	9.4	11.4	8.5	8.7	21.1	10.5	15.4
왜도	.45	.28	.83	.71	.15	.09	.69	-.03	.18	.22
첨도	.43	.89	.06	.15	-.16	-.49	-.16	.35	.28	1.28

* $p < .05$, ** $p < .01$

$r(611) = -.07$, ns. 반면 냉담무정서 특질은 긍정 정서 빈도, $r(611) = -.18$, $p < .01$ 와 서로 중간 수준으로 상관되었고, 부정 정서 빈도, $r(611) = -.08$, $p < .05$ 와는 서로 약한 수준으로 상관되었다. 냉담무정서 특질이 정서 강도 총점, $r(611) = -.41$, $p < .01$, 긍정 정서 강도, $r(611) = -.41$, $p < .01$, 및 부정 정서 강도, $r(611) = -.23$, $p < .01$ 와는 중간 수준으로 상관되었다.

특성 불안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 $r(611) = .61$, $p < .001$ 와 서로 높은 수준으로 상관을 보였다. 또한 특성 불안은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 $r(611) = .14$, $p < .01$ 과 서로 중간 수준으로 상관되었다. 특성 불안과 정서 빈도 총점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r(611) = .06$, ns. 하위 요인인 긍정정서 빈도, $r(611) = -.41$, $p < .01$ 와 부정 정서 빈도, $r(611) = .48$, $p < .01$ 와는 중간 수준으로 상관되었다. 또한 특성 불안과 정서 강도 총점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r(611) = .04$, ns. 긍정 정서 강도, $r(611) = -.21$, $p < .01$ 및 부정 정서 강도, $r(611) = .39$, $p < .01$ 와는 중간 수준으로 상관되었다.

집단의 선별과 각 집단 별 독립표본 t검증

집단 선별 결과는 표 2와 같다. 현재 국내에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판단가능한 냉담무정서 특질의 절단 점수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 점수가 상위 15%로, 준임상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을 고 냉담무정서 특질의 정신병질 성향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절단 점수가 냉담무정서 특질 31점 이상으로, K-ICU를 타당화한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1) 연구에서 보호관찰 중인 중학생 K-ICU 평균 29점과 송보경, 이주영(2014) 연구의 수감 중인 중고등학생 K-ICU 평균 26점보다 엄격한 기준이었다. 다음으로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 내에서 일차적 집단과 이차적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특성 불안 점수의 절단 점수는 최효임, 송한수, 신미연(2005)의 연구를 따랐다.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 내에서 특성 불안 점수가 하위 25%로 43점 이하인 집단을 일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고냉담/저불안 집단)으로 보았고 전체 표본 중 4.42%에 해당하는 27명이 선정되었다.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 내에서 특성 불안 점수가 상위 25%로 절단 점수는 52점 이상인 사례들을 이

표 2. 선별집단 주요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사례수

	정신병질 성향집단		비교 집단	
	고냉담/저불안집단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	고냉담/고불안집단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	저냉담/저불안집단 (낮은 위험집단)	저냉담/고불안집단 (불안집단)
냉담무정서 특질 $M(SD)$	36.85(5.10)	34.71(2.92)	12.76(2.89)	13.64(2.43)
특성 불안 $M(SD)$	37.59(5.55)	56.25(5.88)	32.76(3.75)	52.08(5.54)
사례수(%)	27(4.42%)	28(4.58%)	34(5.56%)	25(4.09%)

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고냉담/고불안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집단에는 전체 표본 중 4.58%에 해당하는 28명이 선별되었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질 점수 하위 15%로 절단점수 16점 이하의 사례들에서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저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 내에서 특성 불안 점수가 하위 25%로 절단점수 36점 이하인 저 냉담/저불안 집단에는 전체 표본의 5.56%인 34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저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에서 특성 불안 상위 25%로 절단점수가 46점 이상인 저냉담/고불안 집단에는 전체 표본의 4.09%에 해당하는 25명이 이에 선별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114명의 사례였다.

각 집단들 내에서 응답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 특성불안, 부정적 자동적 사고, 자기본위적 인지적 왜곡, 정서경험, 정서강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 그리고 저냉담/저불안 집단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저냉담/고불안 집단에서 특성 불안의 기관(중학생, 고등학생) 간 차이와 냉담무정서 특질의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성 불안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 = -1.72, p < .05$. 이와 함께 냉담무정서 특질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 = -2.7, p < .01$.

집단 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차이

집단 간 인지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총점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 110) = 33.26, p < .001$.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어떠한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서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저불안 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저냉담/고불안 집단도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저불안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하위요인들인 우울인지, $F(3, 110) = 45.04, p < .001$, 사회불안 인지, $F(3, 110) = 32.29, p < .001$, 신체적 위협인지에서도 $F(3, 110) = 12.90, p < .001$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적대적 인지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3, 110) = 1.97, ns$.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불안이 높은 두 개의 집단, 즉 이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고불안)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총점, 우울 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를 낮은 불안의 일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저불안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저냉담/저불안 집단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간의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의 차이

집단 간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의 차이도 표 3과 같다.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110) = 13.43, p < .001$. 사후분석 결과 고 냉담무정서 집단들인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이 저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보다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에서 고 냉담무정서의 두 집단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저 냉담무정서 집단들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질은 불안의 고저와 상관없이, 다른 집단들보다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을 더욱 많이 보이는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 간 정서경험 빈도의 차이

집단 간 정서경험의 차이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정서 빈도 총점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110) = 3.08, p < .05$.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저냉담/저불안 집단 및 저냉담/고불안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이 저냉담의 두 집단들보다 정서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 냉담의 두 집단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긍정 정서 빈도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110) = 14.46, p < .001$.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저냉담/저불안 집단은 일차적,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의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집단들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 정서 빈도에서

표 3. 집단 간 인지적인 요인들의 차이 비교

변인	정신병질 성향집단		비교 집단		F	사후검증
	1 고냉담/저불안 (n = 27) M(SD)	2 고냉담/고불안 (n = 28) M(SD)	3 저냉담/저불안 (n = 34) M(SD)	4 저냉담/고불안 (n = 25) M(SD)		
부정적 자동적 사고 총점	24.33(15.81)	55.89(22.58)	15.44(11.02)	50.52(25.89)	33.26***	2, 4 > 1, 3
우울 인지	4.85(5.74)	17.89(9.26)	1.20(1.29)	14.80(10.27)	45.04***	2, 4 > 1, 3
사회불안 인지	5.14(5.27)	17.39(9.03)	2.85(3.00)	16.20(10.29)	32.29***	2, 4 > 1, 3
신체적 위협	2.69(3.65)	8.07(4.76)	2.41(2.87)	7.48(6.57)	12.90***	2, 4 > 1, 3
적대적 인지	11.37(6.04)	12.53(5.15)	8.97(6.99)	12.04(4.01)	1.97	ns.
자기분위적 인지 왜곡	36.85(10.45)	38.10(11.72)	26.08(5.31)	29.52(5.49)	13.43***	1, 2 > 3, 4

주. 사후검증 결과에서 부등호표시는 각 조건에서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크거나 작음을 나타냄.

1 = 일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저불안) 집단; 2 = 이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고불안) 집단; 3 = 낮은 위협 집단; 4 = 불안 집단

* $p < .05$, ** $p < .01$, *** $p < .001$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110) = 11.74, p < .001$.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불안이 높은 두 개의 집단(고냉담/고불안)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은 저 불안의 두 개 집단(고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저불안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정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 집단)은 긍정 정서 빈도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 빈도 또한 덜 경험하였다. 반면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긍정 정서 빈도에서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차이가 없었지만, 부정 정서 빈도를 보다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정서경험 강도의 차이

집단 간 정서 경험의 강도에서 차이는 표 4

와 같다. 첫째 정서 강도 총점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110) = 23.68, p < .001$.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저냉담/고불안 집단이 다른 세 집단들보다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냉담/저불안 집단이 고 냉담무정서의 두 집단보다 더 강하게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고 냉담무정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긍정 정서 강도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110) = 16.54, p < .001$.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긍정 정서를 저 냉담 무정서의 두 집단보다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냉담무정서 집단들 간의 차이와 저 냉담무정서 집단 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부정 정서 강도에서 집단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 110) = 26.56, p < .001$.

표 4. 집단 간 정서적인 요인들의 차이 비교

변인	정신병질 성향집단		비교 집단		F	사후검증
	1 고냉담/ 저불안 (n = 27)	2 고냉담/ 고불안 (n = 28)	3 저냉담/ 저불안 (n = 34)	4 저냉담/ 고불안 (n = 25)		
	M(SD)	M(SD)	M(SD)	M(SD)		
정서 빈도 총점	24.85(9.73)	30.35(17.01)	33.44(7.68)	32.64(10.80)	3.08*	3, 4 > 1
긍정 정서 빈도	17.66(7.08)	13.32(8.80)	25.58(8.25)	15.28(7.32)	14.46***	3 > 1, 2, 4
부정 정서 빈도	7.18(5.69)	17.03(11.21)	7.85(7.43)	17.36(9.53)	11.74***	2, 4 > 1, 3
정서 강도 총점	122.92(22.57)	135.60(21.33)	152.82(19.91)	167.04(17.75)	23.68***	4 > 3 > 1, 2
긍정 정서 강도	80.03(17.82)	79.07(11.10)	99.47(15.56)	99.60(15.31)	16.54***	3, 4 > 1, 2
부정 정서 강도	42.88(8.34)	56.53(12.58)	53.35(9.47)	67.44(9.04)	26.56***	4 > 2, 3 > 1

주. 사후검증 결과에서 부등호표시는 각 조건에서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크거나 작음을 나타냄.

1 = 일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저불안) 집단; 2 = 이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고불안) 집단; 3 = 낮은 위험 집단; 4 = 불안 집단.

* $p < .05$, ** $p < .01$, *** $p < .001$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이 다른 세 집단들 보다 부정 정서를 가장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높은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과 저냉담/저불안 집단은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보다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했고, 저냉담/고불안 집단보다는 약하게 경험했다. 이차적 냉담무정서(고냉담/고불안) 집단과 저냉담/저불안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 냉담무정서 집단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과 긍정 정서 강도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부정 정서 강도를 더 약하게 경험했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부정정서 강도를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보다 더 강하게 경험했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병리적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을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비교집단으로 저냉담/저불안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을 추가하여, 네 집단 간 인지 내용과 정서적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저 냉담무정서의 두 집단들에 비해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정서 경험의 빈도와 강도 면에서 긍정정서와 부

정정서와 상관없이 가장 제한된 정서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서적성’, ‘둔화된 정서’로 표현되는 원형적인 정신병질의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저 냉담무정서 집단들보다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드러냈고,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저냉담/저불안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동사고를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다. 또한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긍정정서의 빈도와 강도에서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게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부정정서의 빈도와 강도에서는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보다 더 높은 수준, 저냉담/고불안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차적 정신병질 특성을 나타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네 집단들 간 차이에 대해 검증한 결과, 높은 냉담무정서와 높은 불안이 공존하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이 낮은 불안의 두 집단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대나 외상의 경험을 더 자주 경험해온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부정적인 자동사고로 인해 자극에 더욱 쉽게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며, 무력감, 우울, 불안 등의 내현적인 문제가 공존하게 된다(Frick et al., 2017).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가혹한 평가는 자기 비판과도 관련있다. Shine과 Hobson(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은 자기비판과 부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이차적 정신

병질 집단은 자기비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의 자기비판이 자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무가치감, 우울감, 열등감, 분노 등의 부정정서를 동반하고 긍정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여 우울증에 취약하게 됨을 밝힌 Whelton과 Greenberg(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되었다. 반대로,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적게 보이고, 저냉담/저불안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환경적 자극에 자기비판이 증가하는 경향이 적으며,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낮은 특징은 이전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

둘째,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에서 대한 네 집단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고 냉담무정서 집단들이 저 냉담무정서 집단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을 보였다. 외현화 문제에 특징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에 기저하는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은 불안의 고저와 상관없이,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집단에서 특징적이었다. 그러므로 고 냉담무정서 특질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으로 인해 이들이 합법적인 견해나 타인의 관점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 만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함을 시사한다(Flexon, 2015, 2016). 또한 충동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축소, 합리화, 책임 전가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데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Chabrol et al., 2011).

셋째, 정서경험의 빈도와 강도에서 네 집단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전체 정서 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하는 얕은 정서는 대인관계에서 깊은 교류를 제한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특히,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이 부정 정서의 빈도와 강도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불안이나 두려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타인의 고통을 덜 인식하며 처벌에 둔감하게 만들 것을 시사한다(Cleckley, 1941; Hare, 2003).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특별히 긍정 정서를 낮고 약하게 보임으로써 제한된 긍정 정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정서는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 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이 적응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과도한 부정정서성과 내현화 문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Euler et al., 2015; Kahn et al., 2013).

넷째, 정서경험의 강도 측면에서 각 집단이 겪는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은 긍정적인 정서를 약하게 경험하고 타인의 괴로움,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능력의 발달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Frick, Kahn, Golmaryami, & Marsee, 2017). 반면 Gill과 Stickle(2016)의 연구에서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보다 정서강도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큰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정정서 강도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저냉담/고불안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강도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이 저냉담/고불안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더 넓은 범위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은 고 냉담무정서 집단들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Gibbs와 Chabrol(2013)의 연구와 일관되었다. 반면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내현화 문제가 공존하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에서 특징적이었다. 정서경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이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의 원형적인 특성인 제한된 정서를 보이고, 얇은 정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긍정정서에 대해 특별히 제한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정서의 빈도와 강도에서는 일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여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한 집단으로 보인다. 부가적으로 저냉담/고불안 집단은 부정적 자동사고와 정서경험의 빈도 측면에서 이차적인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반면 이 두 집단은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과 정서강도에서 달랐다.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

단(고냉담/고불안)은 저냉담/고불안 집단보다 자기본위적인 인지 왜곡을 더 많이 보였고, 정서강도에서는 이와 반대로 저냉담/고불안 집단이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냉담/고불안 집단이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보다 더 정서적으로 넓은 범위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집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의의는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을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 내에서 특성 불안의 고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 있다. 정서적 결함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을 보유한 것으로 개념화된 저 불안의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의 특성과 외상이나 학대로 내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과도한 부정 정서성과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고 불안의 이차적인 정신병질 집단의 특성이 본 연구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별히 냉담무정서 특질은 성인기 정신병질의 발현 이전에 아동 청소년기에도 적용하기에 적합한 변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등 대규모 자료에 기초해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 측정치로 성인기 정신병질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냉담무정서 특질 내의 불안의 역할을 규정하는 과제는 또 하나의 연구 주제이다. 도덕 발달 이론가들은 ‘너무 높은’ 수준의 불안과 ‘너무 낮은’ 수준의 정서적 반응성이 복잡한 사회적 감정인 죄책감과 공감의 발달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ochanska, 1993, 1995, 1997). 제한된 정서 경험을 하는 기질의 개인은 중요한 사회화 신호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외상 경험으로 과민하게 감정 반응을 하거나 조

절되지 않는 개인은 부정적인 단서에 자주 감정적으로 압도되기 때문에 부모의 분노 또는 또래의 고통을 초래하고 이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불안은 어떤 경로를 거쳐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기질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중요해 보인다(Euler et al., 2015).

둘째,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저불안)과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 각각에 특징적인 인지적 왜곡과 정서경험의 빈도와 강도의 관련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차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해 냉담무정서 하위집단들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도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신병질의 만성화를 예방을 위해서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이는 청소년의 하위유형을 면밀히 분류한 후 유형별 조기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임상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정신병질 성향의 청소년에 대해 초기의 집중 치료가 이후의 폭력 및 기타범죄 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Skeem, Polaschek, & Manchak, 2009) 무엇보다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크다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집단의 특성에 따라 인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 대한 차별적인 치료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불안의 고저와 관계없이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개인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인지적 요인인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의 하위 요소들을 표적으로 인지 행동 치료 및 심

리 교육적 개입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현저성을 높이는 방법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밝힌 선행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van Baardewijk, Stegge, Bushman, & Vermeiren, 2009). 청소년 이차적 정신병질 성향의 집단이 전통적 심리 치료에 반응적이며 이들의 행동문제에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기저하여 이를 다뤄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Horvart & Symonds, 1991; Skeem, Johansson, Andershed, Kerr, & Loudon, 2007). 이들은 비교적 후천적 영향에 의해 자기 비판적이며 과민한 부정 정서성을 보유하게 되는 경향이 크므로 적어도 혐오적인 자극과 자신의 공포, 불안 반응을 연합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안이 높은 이차적 정신병질 성향의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부정 정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지적 개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 경험 회피를 감소시키고 보다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습득하기 위한 정서조절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과 비교 가능한 저냉담/고불안 집단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높은 불안의 집단 내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고/저에 따라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남을 밝혔다. 고냉담/고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부정 정서 경험의 빈도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자기본위적 인지 왜곡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과 저냉담/고불안 집단의 부정정서 강도 경험의 차이는

자기분위적인 인지왜곡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현화 문제를 공유하는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고냉담/고불안)은 자기비판으로 인한 후회나 죄책감의 강도를 높은 수준의 자기분위적인 인지 왜곡으로 중화하고 부정 정서를 행동화하여 재빠르게 해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저냉담/고불안 집단은 후회나 죄책감 및 고통을 경험할 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영향을 인지적으로 중화하기 어렵고 부정 정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넷째, 냉담무정서 특질을 기반으로 정신병질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선행 연구들은 집단을 구분할 때 군집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으로 일반 아동 청소년 연구 시 표본의 30% 이상이 일차적 정신병질 성향 집단이 과다추정되었던 선행연구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점수 상위 15%를 준임상군으로 가정하여 정신병질 2요인 이론(Karpman, 1941)에 합당한 대상을 선정하고자 한 점이 또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구분을 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상하위 15%의 비율을 적용한 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냉담무정서 특질을 토대로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연구 시도나 절단점수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청소년 정신병질 하위집단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집단의 구분에 성별을 분리하거나 성별에 따라 다른 절단점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때로는 보호관

찰 대상 및 수감 중 품행 문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표본에 남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Euler et al., 2015). 이와 함께 성차가 본 연구의 관심 주제는 아니었으나 성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CD의 유병률이 높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유병률이 낮은 여자 청소년이 CD로 진단받을 경우 불안이나 ADHD의 동반 이환 확률이 높고 외현화 문제도 더 심각한 성의 역설(gender paradox)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차적 정신병질 집단은 대다수가 남자 청소년이고 냉담무정서 특질 점수가 여자 청소년보다 높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불안과 기분장애의 동반 가능성이 높아 이차적 정신병질 집단에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 수에 근접하거나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Essau et al., 2006, Lehto-Salo, Narhi, Ahonen, & Marttunen, 2009; Euler et al., 2015). 본 연구의 표본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성불안 점수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정신병질 성향 하위집단의 성별 분포도 선행 연구와 일관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의 고려하는 것이 또다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 냉담무정서의 하위 집단 대상자들의 인지 및 정서적인 내적 경험에 초점을 두어 외적인 행동 특성이나 대인관계 측면의 차이에 대한 점검이 부재하다. 이들이 겪는 내적 곤란의 징후는 행동이나 대인관계 양식으로 발현되는데, 이러한 변인이 부재한 것은 결과 논의에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규칙 위반 행동 및 공격성의 빈도 및 강도, 또래압력, 학업포기 등의 변인과의 차별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로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이차적 냉담무정서 집단의 유병률이 성인의 유병률보다 과다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isenbarth, Demetriou, Kyranides & Fanti(2016)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품행 문제와 냉담무정서 특질의 안정성에 대한 1년간의 종단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원래 고 냉담무정서 특질과 품행 문제를 보인 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안정적이었고 고 위험의 집단이 저 위험 집단으로 변화되는 사례는 없었다. 반면 냉담무정서 특질과 품행 문제가 저 위험 수준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 위험 수준으로 증가하는 집단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내재화 문제 및 정서조절 장애의 증가로 유발됨이 밝혀졌다. Eisenbarth 등(2016)은 이들이 단기간에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 위험 집단의 품행 문제를 나타내고 성인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과 유사한 행동 문제를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중요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이차적 정신병질 성향의 집단이 회복되거나 반대로 성인기 이후까지 안정성을 가지게 만드는 경로를 탐색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역경을 완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및 연구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질 및 반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 시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정택 (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 (2010).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 척도(K-ICU)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6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송보경, 이주영 (2013).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633-660.
- 오승은 (2011).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와 또래 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신희천 (2016). 정서강도가 정서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37-657.
- 이지후, 이훈진, 안도현 (2017).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12), 303-346.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2(4), 935-946.
- 이효신, 이강선 (2016). 품행장애 청소년과 자

- 페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371-391.
- 조진주 (2008). 청소년의 애착과 완벽주의성향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효임, 송한수, 신미연 (2005). 특성불안에 따른 공포/비공포 자극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31-46.
- 하은혜, 김효은 (2017). 학교폭력 청소년의 부모 모니터링과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의 차이.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1), 67-88.
- 하은혜 (2006).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특수성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2), 429-447.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의 상태-특성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93, 505-512.
- 한수민 (2018). 냉담-무정서 특질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정서적 얼굴표정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성민, 현명호 (2015). 자기초점 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적 반응양식에 의해 조절되는 자기비판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스트레스研究*, 23(4).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황순옥 (2015). 연령단계별 강간통념과 인지왜곡이 청소년들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순택, 권은정, 손애리 (2010).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 척도(K-ICU)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 Barriga, A. Q., Gibbs, J. C., Potter, G. B., & Liao, A. K. (2001). *How I Think (HIT) Questionnaire manual*. Champaign: Research Press.
- Book, A. (2005). Psychopaths as social predato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6(2-B), 1216.
- Bresin, K., Boyd, R. L., Ode, S., & Robinson, M. D. (2013). Egocentric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 in primary, but not secondary, psychopath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2), 412-418.
- Chabrol, H., Leeuwen, N., Rodgers, R. F., & Gibbs, J. C. (2011). Relations between 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 psychopathic traits, and delinquent behavior in a non-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887-892.
- Cleckley, M., H. (1941). *The mask of sanity: An attempt to reinterpret the so-called psychopathic personality*.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 Del Gaizo, A. L., & Falkenbach, D. M. (2008).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tra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emo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3), 206-212.
- Docherty, M., Boxer, P., Huesmann, L. R., O'Brien, M., & Bushman, B. J. (2016). Exploring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of psychopathy in adolescents in detention and in the commun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5(5), 564-578.
- Eisenbarth, H., Demetriou, C. A., Kyranides, M. N., & Fanti, K. A. (2016). Stability subtypes

-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disorder symptoms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9), 1889-1901.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4), 454-469.
- Euler, F., Jenkel, N., Stadler, C., Schmeck, K., Fegert, J. M., Kölch, M., & Schmid, M. (2015). Variants of girls and boys with conduct disorder: Anxiety symptoms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4), 773-785.
- Falkenbach, D., Poythress, N., & Creevy, C. (2008). The exploration of subclinical psychopathic subtyp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ype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821-832.
- Fanti K. A., Demetriou C. A., & Kimonis E. R. (2013). Variants of callous-unemotional conduct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7), 964-979.
-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u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0(1), 23-39.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Flexon, J. L. (2015). Evaluating variant callous-unemotional traits among non-institutionalized youth: Implications for violence research and polic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3(1), 18-40.
- Flexon, J. L. (2016).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ifferently motivated aggression: An examination of variants in a noninstitutionalized sampl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4), 367-389.
- Frick, P. J. (2006).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disorde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5(2), 311-331.
- Frick, P. J., & Morris, A. S. (2004).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3(1), 54-68.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59-375.
- Frick, P. J., Ray, J. V., Thornton, L. C., & Kahn, R. E. (2014). Can callous-unemotional traits enhance the understand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rious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prehens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1), 1.
- Frick, P. J., Kahn, R. E., Golmaryami, F. N., Marsee, M. A. (2017). The Moderating Role of Anxiety in the Association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with Self-Report and Laboratory Measures of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3), 583-596.
- Gibbs, J. C., Chabrol, H., Rodgers, R. F. (2013). Cognitive distortions, psychopathic traits, and

- antisocial behavior in a non-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self-serving cogni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2), 229-237.
- Gill, A. D., & Stickle, T. R. (2016). Affective differences between psychopathy variants and genders in adjudicated yout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2), 295-307.
- Hare, R. D. (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1-119.
- Hare, R. D. (1999).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re, R. D., Clark, D., Grann, M., & Thornton, D. (2000). Psychopathy and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PCL-R: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8(5), 623-645.
- Hare, R. D. (2003).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2nd edition, technical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9-149.
- Humayun, S., Kahn, R. E., Frick, P. J., & Viding, E. (2014).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xiety in a community sample of 7-year-old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3(1), 36-42.
- Humayun, S., O'Connor, T. G., Briskman, J. A., & Scott, S. (2016). Sensitivity to parenting in adolescents with callous/unemotional traits: Observational and experimental finding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5(4), 502.
- Kahn, R. E., Byrd, A. L., Pardini, D. A. (2013). Callous-unemotional traits robustly predict future criminal offending in young men. *Law and Human Behavior* 37(2), 87-97.
- Kahn, R. E., Frick, P. J., Golmaryami, F. N., & Marsee, M. A. (2017). The moderating role of anxiety in the association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with self-report and laboratory measures of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3), 583-596.
- Karpman, B. (1941). On the need of separating psychopathy into two distinct clinical types: The symptomatic and the idiopathic. *Journal of Criminal Psychopathology*, 3, 112-137.
- Kimonis, E. R., Skeem, J. L., Cauffman, E., & Dmitrieva, J. (2011). Are secondary variants of juvenile psychopathy more reactively violent and less psychosocially mature than primary variants? *Law and human behavior*, 35(5), 381-391.
- Kimonis, E. R., Frick, P. J., Cauffman, E., Goldweber, A., & Skeem, J. (2012).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of juvenile psychopathy differ in emotional process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3), 1091-1103.
-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2), 325-347.
- Kochanska, G. (1995). Children's temperament,

- mothers' discipline, and security of attachment: Multiple pathways to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3), 597-615.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28-240.
- Kosson, D., & Newman, J. (1995). An evaluation of Mealey's hypotheses based on psychopathy checklist-identified group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3), 562-563.
- Larsen, R. J. (1984). Theory and measurement of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7-B), 2297.
- Lehto-Salo, P., Narhi, V., Ahonen, T., & Marttunen, M. (2009). Psychiatric comorbidity more common among adolescent females with CD/ODD than among male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3(4), 308-315.
- Lykken, D. T.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ynam, D. R., Whiteside, S., & Jones, S. (1999). Self-reported psychopathy: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3(1), 110-132.
- Marsh, A. A., Finger, E. C., Schechter, J. C., Jurkowitz, I. T. N., Reid, M. E., & Blair, R. J. R. (2011). Adolescents with psychopathic traits report reductions in physiological responses to fea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2(8), 834-841.
- Meehan, A. J., Maughan, B., Cecil, C. A., & Barker, E. D. (2017). Interpersonal callousness and co-occurring anxiety: Developmental validity of an adolescent taxonom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2), 225.
- Newman, J. P., MacCoun, D. G., Vaughn, L. J., & Sadeh, N. (2005). Validating a distincti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y with measures of Gray's BIS and BAS construc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2), 319.
- Patrick, C. J. (1994). Emotion and psychopathy: Startling new insights. *Psychophysiology* 31(4), 319-330.
- Patrick, C. J., Hicks, B. M., Krueger, R. F., & Lang, A. R., (2006). Relations between psychopathy facets and externalizing in a criminal offender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4), 339-356.
- Poythress, N. G., & Hall, J. R. (2011). Psychopathy and impulsivity revisite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20-134.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9), 1091-1109.
- Shine J. H., & Hobson J. A. (1997). Construct validity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on a U.K. prison population.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8(3), 54-561.
- Skeem, J., Johansson, P., Andershed, H., Kerr, M., & Louden, J. E. (2007). Two subtypes of psychopathic violent offenders that parallel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2), 395-409.

- Skeem, J. L., Polaschek, D. L. L., & Manchak, S. (2009). Appropriate treatment works, but how?: Rehabilitating general, psychopathic, and high-risk offenders. In J. L. Skeem, K. S. Douglas, & S. O. Lilienfeld (Eds.), (pp.358-38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van Baardewijk, Y., Stegge, H., Bushman, B. J., & Vermeiren, R. (2009). Psychopathic traits, victim distress and agg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6), 718-725.
- Vaughn, M. G., Edens, J. F., Howard, M. O., & Smith, S. T. (2009). An investig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y in a statewide sample of incarcerated youth.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7(3), 172-188.
- Watson, D., Clark, L. A., & Carey, G. (198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346-353.
- Weinfurt, K. P., Bryant, F. B., & Yarnold, P. R. (1994). "The Factor Structure of the Affect Intensity Measure: In Search of a Measurement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3), 314-331.
- Whelton, W. J., & Greenberg, L. S. (2005). Emotion in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7), 1583-1595.
- 원고접수일 : 2021. 11. 11.
게재확정일 : 2021. 12. 21.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Cognition and Emotion Per Adolescents' Psychopath Subgroups*

Chae Eun Kwon¹⁾ Hee Cheon Shin²⁾ Sung-DooWon³⁾ Eun Jung Kim^{2)†}

¹⁾Mind and Learning Counseling Center, Clinical Psychologist Trainee

²⁾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Professor

³⁾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ubgroups of adolescents classified by callous-unemotional (CU) traits and anxiety show cognitive and emotional patterns similar to subgroups of psychopath adolescents, using 611 students' data in middle and high school. The Korean-version Inventory of the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the Trait Anxiety Inventory were used to distinguish groups. Further, it comprised the primary CU group (high CU/low anxiety) and the secondary CU group (high CU/high anxiety) as psychopath tendency subgroups, and two comparative groups (low CU/low anxiety and low CU/high anxiety). Furthermore, the Korean-versio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the How I Think Questionnair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nd Affect Intensity Measure were used to examine cognitive and emo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four groups. The results show two psychopath-like subgroups were distinguished cognitively and emotionally. The primary CU group is related to more 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 and the lowest level in frequency and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s. Second, the secondary CU group is characterized by 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Moreover, they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more often and strongly than the primary CU group.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and clinicians can focus on differentiated treatment targets. Finally, the significance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allous-unemotional traits, trait anxiety, Psychopath subgroups, cognitive distortion, emotional experience

* This study is a revision and supplemen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Corresponding Author : Eun Jung Kim /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 E-mail : kej@ajou.ac.kr